진여원(真如苑) NEWS LETTER [제16호](2015.1)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3가 119-2 진여원홍보팀

새해 한수행, 전국 의처에서 일제히 개최!

종정스님, 원단회 서교 통해 2015년도 정진목표 제시

종정스님은 1월 1일 원단회 법요에서 2015년도 일년간의 지침이 되는 서교를 주셨다. 특히 정진목표와 실천덕목 및 사유를 다음과 같이 주셨다.

정진 목표	**오야소노 장엄에 호법의 정신으로 진여제섭을 펼친다**
실천 덕목	**1. 선근을 키우는 실천행 2. 이타에 바치는 공헌**
사유	**인류 모두에게 손길을 펼쳐 구제하는 것은 종교가의 길이다**

2015년 한수행 개백, 1월 23~25일 전국 의처에서 활기차게 개최

2015년 한수행이 정초 벽두부터 전국 각 의처에서 활기차게 진행되고 있다. 1월 23(금), 24(토), 25(일) 3일간 새벽 6시 30분에 개시된 이번 한수행에서는 예년과 달리 독경의 상당부분이 한국어로 진행되었다. 금, 토, 일에 개최되었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발생하여 수행 종료 후 신도회관에 많은 교도들이 옹기종기 모여 금년도 각자의 정진목표와 각오 등을 환담하고, 덕담을 주고받기도 했다.

이번 한수행은 세계 52개국 9천개 이상의 정사 및 기타 외부회장에서 동시에 개최되고 있다. 중원(中願)은 1월 27일~29일의 3일간 개최되었고, 결원(結願)은 1월 31일~2월 2일간 개최된다. 2월 3일은 절분회(節分會)로서 만원(滿願)을 맞이하게 된다. 절분회에서는 악귀를 쫓고 새해의 복을 부르는 콩뿌리기도 행해진다.

진여원 홈페이지(www.shinnyo-enkorea.or.kr), 신도 대상으로 공개 중

진여원 홈페이지가 거의 완성되어 작년 말부터 신도들을 대상으로 개방되고 있다.

<홈페이지 메인화면>

메인화면은 ▲ 신뇨엔 안내 ▲ 법요 ▲ 가르침과 수행 ▲ 정사소개 ▲ 불교가르침과 신앙생활 ▲ 대내외활동 & 소식 ▲ 링크의 7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부문별로 클릭해 들어가면 다시 42개로 분류된 화면이 나타난다.
홈페이지에는 진여원 안내, 진여 가르침의 주요내용 설명, 각종 소식 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고 쌍방향 의사소통도 가능하다. 2월말까지는 신도들에게만 개방하며, 3월부터 정식으로 일반에 오픈할 예정이다. 신도들은 2월말까지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안을 사무국, 홈페이지 댓글, 또는 홈페이지프로젝트팀원(010-4769-1458, 박노경)에게 연락하면 된다. 한수행 2일째 수행 직후 서울포교소에서는 박노경 팀원에 의한 시연회도 개최되었다.

[신뇨엔과 한국불교종단과의 상이점 및 유사점] 주제로 원내 세미나 개최

한수행 개백 3일째 수행이 끝난 1월 25일 아침 8시 서울포교소에서는 [신뇨엔과 한국불교종단과의 상이점 및 유사점에 관한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신뇨엔의 가르침과 수행방식을 한국 불교종단과 비교하여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를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조현철교도(한양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박노경영능자가 [신뇨엔과 한국불교와의 상이점]을, 김형태영능자가 [신뇨엔의 불교로서의 보편성]을 발표하고, 류경박·김성하 교도가 지정질문자로 나서 열띤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발표내용은 다음호에 요약게재 예정). 지정질문에서는 ▲ 석존의 사성제, 팔정도 가르침이 신뇨엔의 수행에 어떻게 수용되어 있는가, ▲ 석존은 제자들에게 사후에는 법신과 자신의 노력(자명등 : 自明燈)에 의지하여 수행하라고 했는데, 개조·영조에 의지할 것을 강조하는 신뇨엔 가르침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 개조·영조 이외에 두 법사님도 많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부동명왕이 신뇨엔에서는 삼륜신의 하나로 모셔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등 핵심적인 질문이 제기되어 두 시간 동안 참석자가 자리를 떠지 못할 정도의 뜨거운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한 교도들은 평소의 많은 궁금증이 풀려 매우 유익한 기회가 되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달의 포토>

부산정사에서는 양의 해를 맞이하여 세 가지 실천에 매진하는 순한 양의 모습을 손으로 세심하게 그린 후, 1층 복도에 전시하여 1년간의 실천을 단단히 각오하고 있는 모습이다.

[제5회 변론대회] 진여원 한국 청년들이 케-슈사마를 보다 가까이에서 뵙는 것을 더욱 기뻐하는 **이충렬 청년**

접심도량의 낙경을 향해 가는 이 때 부산정사에 모셔진 구원상주열반부처님 앞에서 변사로 서게 된 것을, 신뇨 소오야사마, 료도지사마, 케-슈사마, 호법선신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4년은 한국교도, 한국 청년에게는 정말 뜻 깊은 한 해였습니다. 3월 상주제에 맞춰 소오야사마, 료도지사마의 상을 한국에 모실 수 있었습니다. 상 참배 기간에 처음으로 귀원했던 소속의 병이 매우 호전된 일, 가르침을 반대하시던 아버지가 금강선에 결연한 일은 저에게는 기적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Closing ceremony 때 감사의 글을 쓰면서도 소오야사마, 료도지사마가 더 계셨으면 하는 아쉬움에 좀처럼 글이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그 때 문득, 자식을 찾아온 부모님을 붙잡으며 헤어지는 것을 슬퍼하기보다는, 다음엔 제가 먼저 찾아뵙겠다고 약속을 드리는 것에 더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되어 감사의 글 마지막 부분에 다음에는 더 많은 한국교도와 함께 오야소노로 찾아뵙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여름, 가을이 오고… 회사 일이 바쁘기도 하여 오야소노 귀원약속은 까맣게 잊은 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청년회 발족 60주년, 세계청년회합이 있는 올해, 참가자 모집 공고를 보면서도 '올해는 폭포연수에 다녀왔으니, 내년에 가면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응모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친한 친구이자 소속이 회합에 참가하고 싶다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일본이 처음이라 혼자 보낼 수 없어서, 저도 참가신청을 하고, 동생도 설득했습니다. 처음 오야소노에 가는 친구와 동생, 다른 한국 청년들이 많아 사실은 부담이 되었고 노파심에 준비물, 주의사항 등 잔소리를 해댔습니다. 드디어 행사 전날 타치카와에 도착, 다음 날 이른 아침 접심도량 참배 등 한국청년들을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응현원에서 식전이 개시되고, 케-슈사마를 뵙는 순간, 몇 달 동안 까맣게 잊고 있던 그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한국교도들과 함께 찾아뵙겠다던 그 약속! 그런데 소오야사마, 료도지사마께서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이끌어주셨다는 것을 깨닫고는 감사함에 눈물이 마구 흘렀습니다. 아울러 한국청년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마음이 벅차오르는 것입니다.

케-슈사마께서 퇴장하실 때, 한국청년들 가까이를 지나셨습니다. 그 때 저는 제가 케-슈사마를 가까이에서 뵙는 것보다, 한국청년들이 처음으로 케-슈사마를 가까이에서 뵐 수 있게 된 것이 더욱 기뻤습니다. 이 기쁨과 감사로 내년에는 케-슈사마를 모시고 낙경법요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케-슈사마를 모든 청년들이 직접 뵐 수 있도록 청년들을 섬겨나가겠습니다. 또한 입교 100주년 때, 더 많은 한국교도와 함께 오야소노에 귀원하여 소오야사마, 료도지사마, 케-슈사마께 기쁨의 보고를 올릴 수 있도록 한국 신뇨엔의 단단한 토대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굳게 약속드립니다.

[제5회 변론대회] 신뇨엔에 다니게 되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부터 우선 행하기로 결심하고 있는 신현제 청년

저는 대전에서 정진하고 있는 신현제라고 합니다. 모태신앙을 해온 저는 어려서부터 엄마를 따라 신뇨엔에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한 재미를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이제는 청년이 되어 청년부 누나, 형들을 만나면서부터 절에 오는 것이 좋아졌습니다.

올해 봄 소오야사마, 료도지사마의 상이 처음으로 한국에 모셔졌는데, 그 상 참배 후부터 자주 귀원하게 되었고, AYG에도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참을성이 부족한 저는 뭔가 한 가지 일을 하면, 끝까지 하지 못하고 중도에 그만두곤 했는데, 꾸준한 접심과 청년회 활동으로 인내하는 부분을 조금씩 바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진을 하지 않고 알바를 할 때에는, 이주일 정도 지나면 지겨워져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반복했지만, 귀원 후부터는 수개월씩 참고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번 AYG에서는 세계청년들을 보고, 멀리서 수행하러오는 열정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신심도 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도 세계청년들과 가르침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외국어공부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기까지는 홍구표 청년회장님과 여러 청년분들이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가르침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받은 이 감사를 후배청년들에게 전해가는 청년 지도자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안에서는 어려움없이 사랑만 받는 자식이며 철없는 동생으로 편안하게만 지내왔는데, 뭔가 목표를 갖는다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며칠 전 꿈에서 케-슈사마께서 나오셔서 영계에 계신 부모님과 오빠들이 저에게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전해주시며 힘을 주셨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편하게만 생활하고 있는 저에게 관심과 격려를 쏟아주시고 기대해주시는 소오야사마, 료도지사마, 케-슈사마, 호법선신님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시작해보자고 결심하였습니다. 우선 가끔이라도 독경을 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괴롭고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인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경찰공무원이 되고 싶은 저의 꿈을 향해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런지는 잘 모르지만 소오야사마, 료도지사마, 케-슈사마, 호법선신님께 기도하며 하나하나 노력하고 무조건 해보겠습니다.